

임실군, 출입문 전면 통제

열화상카메라 설치... 모든 출입자 발열확인 체크 후 출입

임실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청사 출입문을 일원화하고, 열화상카메라를 긴급 설치하는 등 철저한 청사방호에 나섰다.

군은 2일 정문을 제외한 군청사 본관 주차장 등 3개소, 의회동 후문을 전면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해 발열여부를 체크, 출입토록 했다.

또한 정문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청사 방호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부터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감염증 예방 방지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일원화된 청사 출입구에 발열확인 구역을 설치 후 37.5도 이상 발열자 확인 시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발열여부 확인과 함께 청사 출입 모

든 인원에게 손 소독제 사용유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감염증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군은 청사 내 민원실을 비롯하여 모든 부서는 물론 화장실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내부 주요장소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청사비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손길이 많이 닿는 출입문 손잡이와 승강기 버튼 등을 수시로 자체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주요 시설은 물론 다중집합시설과 유관기 등 110개소와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업인 상

담소 등 부서별 관리시설 등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1월 하순 이후 대구, 경북 지역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을 경우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심 민 군수는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만큼 더욱더 꼼꼼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방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5대 분야 34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속도감 있는 이행을 다짐했다.

남원,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5대 분야 34개 공약 속도감 있는 이행 다짐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5대 분야 34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속도감 있는 이행을 다짐했다.

이환주 시장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민선7기 전반을 지나며 미진한 사업의 문제점을 짚,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경제 분야의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남원형 일 반산업단지 조성 ▲교육복지 분야의 맞춤형 영유아 복지서비스 강화, 행복플러스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농업 농촌 분야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도시 환경 분야 매우 친절한 남원시정 만들기,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등 17개 사업은 이행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조기 개교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공급 등 17개 사업은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조기 완료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다는 방침이며, 남원시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장 최우선 과제로써 각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며, "각종 문제로 추진이 둔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올해도 힐링형 지식관광 교육 이어간다

복지부 공모 선정 '노후준비교육' 국비 1억1500만원 확보

순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건강힐링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군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노후준비교육)'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업 선정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순창군의 10년간 축적된 최적의 인프라와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저비용 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순창군의 노후준비교육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노후준비교육은 충분한 준비 없이 발생하는 노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교육 과정으로, 단순 수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체험, 관광, 힐링이 결합된 특화교육으로 추진된다.

또한, 노화연구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를 필두로 서울대학교 조비용 교수, 한경애 교수, 광충실 교수 등 저명한 강사진의 참여로 퀄리티 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어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3박 4일 심화교육인 제3기 인생대학과정, 미니-메드 스펀과정, 남성을 위한 골드-룩 과정과 1박 2일 기본교육인 관계개선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히 올해 신설된 근육감소 예방 과정은 어르신들에게 근육감소 예방 운동과 영양섭취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각종 노인성 질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10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제1의 건강장수교을 순창군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노후준비교육은 오는 4월부터 실시예정이며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의 교육 희망자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 장수진흥계(063-650-1527)로 전화하거나 또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홈페이지(www.iosr.re.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LED 조명등 무상교체 지원사업 발굴

임실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노후 조명기기를 LED 조명등으로 무상 교체해 해당 시설에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하

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밝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수요조사를 적극 발굴해 취약계

층 에너지 사업에 적극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이달 13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 후 신청가능하다.

군은 지난해에도 저소득층 가구 24세대, 복지시설 38개소의 노후 조명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6천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온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신기술 보급 사업 농외소득 증대

블랙커런트 잼 등 농식품 3종 출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운봉읍의 지리산들꽃다들 농장(대표 박선주)에서 자가 생산한 블랙커런트를 활용한 농식품 3종(블랙커런트 잼, 블랙커런트쥬스, 블랙커런트 콘약젤리)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되는 상품들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 신기술보급 사업(베리류 가공 상품화)의 결과물로, 센터에서는 그동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신기술 보급을 위해 기술과 장비 등을 지원해 왔다.

지리산들꽃다들농장은 블랙커런트 친환경재배를 기본으로 가공과 체험



까지 운영하는 농촌융복합농장으로,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인증 추진하고 있다.

최정인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분야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외소득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소방안전대책 성공적

남원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한 동절기 소방안전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절기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아 5가지 중점 추진과제 및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동절기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원소방서가 동절기 추진한 과제는 ▲국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예방대책 ▲화재취약대상 관리·감독강화 ▲재난 취약계층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민간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 ▲겨울철 폭설 및 한파대비 119구조·구급 활동 강화 ▲화재안전특별조사 성과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및 홍보 등이 다.

김광수 서장은 "남원소방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재난대비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저소득층 학생 학습비 지원

남원에서는 지역 학원연합회(회장 최은영)와 협력해 오는 9일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충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제암실 사업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남원시 소재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습대상자다.

수강과목은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제외한 음악, 미술, 컴퓨터 등의 과목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는 관내 학원과 연계해 학원수강료 60%(초 9만원, 중·고 10만2000원)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 월 2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가맹학원에서 나눔의 교육복지에 동참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와 뜻을 모아 교육복지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IMSIIL CHEESE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